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성탄, 송년주일:** 구주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기쁨 속에 한해를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② **새벽기도회:** 한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26일(월)-30일(금) 5시 30분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주제: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16)

[특별새벽기도회 기도 및 찬양 담당]

26일 기도: 박덕철 집사, 특송: 1, 3남녀 선교회 회장단

27일 기도: 박병민 집사, 특송: 2, 4남녀 선교회 회장단

28일 기도: 고성일 집사, 특송: 학생회

29일 기도: 이동술 집사, 특송: 찬양대

30일 기도: 박제용 장로, 특송: 장로 권사 부부

③ **감사:** 성탄 전야제에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④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성찬식). 온 가족이 함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⑤ **수련회:** 신년맞이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 소통과 동행(아가서2:10)

장소: 2596 Cambridge, TeAwamutu

일시: 2012년 1월 7일(토)-8일(주일)

회비: \$50 (버스) / \$25 (개인 차량)

준비물: 성경, 찬송, 세면도구, 긴 옷, 침낭 (겉 이불), 기타

프로그램: 주일 예배, 가족 장기자랑, 놀이게임, 보물찾기(상품 많습니다) 등.

준비위원: 이동술, 박병민, 고성일, 이정인, 박영태, 최현철, 김수원, 경덕현, 강동호

⑥ **모임:** 현 공동체 장(혹은 인도자)들은 1부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⑦ **수료자:** 3,40대를 위한 성경공부 수료자명단입니다. 최충일, 박후임, 민선희, 원미경

⑧ **수요예배:** 이번 주와 다음 주(2012년 1월 4일)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⑨ **기증:** 2011년 달력을 고성일(김봉희) 집사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이번 주부터 시작될 새 항암제에 대한 불안감이 기쁨이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항암제가 기쁨이 상태에 적합하여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점차 국제적인 연중행사로 변질되고 있는데, 성탄절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도록,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3. 한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며 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도록.
4. 세계의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어 생업이나 직장, 직업을 찾는 성도들에게 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갈보리 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지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NIBC(한동대 선교단체)

국내 선교지

▷밀알장애우 봉사

12월 교회 일지

대림절 3:

12월 11일 (주일)

대림절 4:

12월 18일 (주일)

성탄절, 송년주일:

12월 25일 (주일)

송구영신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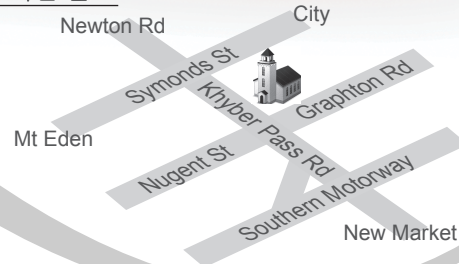
12월 31일 (토요일)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5:50AM Chapel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휴무장로 : 김영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지휘 : 윤형권
반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12월 25일

성탄절 송년주일

주보 13권 52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히브리서 4:15-16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31장	다함께
*성시교독	85. 요한1서 4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552장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20:17-25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태한목사
찬송	304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성시교독 85. 요한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
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
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
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
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
어지느니라**

갈보리 칼럼

감사합니다.

25년의 직장 생활을 자의 반 타의 반 그만
두려 했을 때 친구들이 내게 해주던 조언은
거의 똑같다. 회사 그만두고 나와야 할 것 없
으니 웬만하면 꼭 붙어 있으라는 말. 난들 겁
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다니고 싶지 않
을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며 던지던 나의
답변 또한 같다. “해 먹을 거 없으면 분식집
이나 하지 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하나도 틀린 말 아니
다. 2년이 지난 지금 분식집 비스프레한 것을
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 땅이 아닌 이곳 뉴질
랜드에서. 아이 교육문제를 핑계로 학생비자
를 얻어 이곳에 왔지만 계속 놓고먹을 수는
없는 일,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궁리 끝에 내
린 결론이 스시집이다. 집사람이 그나마 파
트타임으로 다니던 곳이 스시집이고 그 일이
다른 일보다 조금은 쉬울 것 같아 장사 비자
아이템으로 시작한 건데, 웬걸, 하고 보니 그
게 아니다.

말이 스시집이고 일식당이지 구멍가게 규
모에 음식 수가 80여 가지 되다 보니 완전
동네 분식점이다.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 밤
열 시에 돌아와야 하는 고달픈 비즈니스. 이
제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비몽사몽,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
이 지나가는 요즘 안 하던 일을 무리하게 해
서인지 손끝이 저리기 시작하니 은근히 걱
정도 된다.

이렇게 살려고 이곳 뉴질랜드까지 왔나 한
심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곰곰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다. 지난 2
년간 할 일 없이 방황하고 곳감 빼먹듯 빠져
나가는 통장 잔고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를 받았던가.

그래도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지내야 하는
일상보다는 좋다. 물론 몸은 많이 힘들지만,
마음은 지금이 훨씬 편하다. 감사하다, 이곳
에 와서 감사할 또 한 가지 일은 믿음 생활을
좀 더 충실히 하게 된 일이다. 집사람의 잔
소리에 마치 못해서, 홀로되신 노모에 효도
한다는 심정으로 끌려다니다시피 했던 신앙
생활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의지할 데 없다 보
니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된 일이 제일 큰 보

람 아닐까.

영주권 받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정보나 얻
고 혹시 도움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
을까 해서 나간 이곳 교회이지만 지금은 그
런 계산기 두드리는 믿음 생활은 안 하려 한
다. 잘못된 믿음 생활이니까.

지난주 우리 공동체 마지막 모임 주제가 하
나님의 용서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잘
못된 믿음 생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요
즘 장사로 몸이 고달프다 보니 한동안 열심
이던 성경공부도, 틈틈이 하던 기도생활도,
차만 타면 꺼려 놓고 흥얼거리던 찬송가도,
어느 때부터인지 잊고 살았다.

그래도 나의 신앙생활의 멘토이신 우리 공
동체 장로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그리 잘못된 게 아
닌가 위안하며 지냈는데 권사님의 지나가듯
하시는데 말씀이 아무래도 의미 있는 일침인
듯하다.

“몸이 피곤할수록 신앙생활에 게을리하
지 말라는 말씀. 그래... 무조건 용서해 주시
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셨지. 잘해야
지...

마지막 공동체 모임 예배시간, 하나님과 공
동체 식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
다.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시는 장로님
과 권사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
해서 공동체 시간을 잘 이끌어 주고 계신 인
도자 집사님, 휴가 때 쉬지도 않으시고 가게
까지 오셔서 이런저런 요리법을 가르쳐 주
시던 형님 같은 집사님, 영주권으로 가는 길
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도 가르쳐 주시는 동갑내기 친구 같은 집사
님 모두들 감사하다.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
았으니 나이는 장년이나 믿음생활에서는 유
아인 내가 이곳 공동체 식구들과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

말이 씨가 돼서 시작하게 된 스시집, 스시
하나를 팔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팔아야
지...

- 양봉욱 집사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진혜령전도사	
성경봉독	시편 119:67-74	인도자
설교	고난 당한 것이	심창진목사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 주 기도: 박형길형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인도: 이태한목사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인도자	
설교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주여 왜? 까를로 까레토 지음 를 읽고 (현석호 장로)



이 글은 작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삶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이어진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가 그렇듯이 한 생명이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 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이 글속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가장 거룩 되고 진실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우리에게, 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하는 우리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까를로 까레토, 이태리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장차 수사가 되어 그를 필요로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복음적 삶의 증인이 되고자 늘 원하고 있었다.

그의 복음적 삶의 하나로서 그는 산악 구조대원이 되기를 원했으며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는 그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맞게 된다. 훈련도중 잠시 피곤해진 그에게 친구가 그를 위해서 허벅지에 피로 완화제로 주사를 놓은 것이 실수로 독이든 주사를 놓게 되어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버린다.

그는 그의 친구를 크게 원망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간단한 일로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멈추게 하지 않았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너무나 유치하거나 보잘것없는 의문이 되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으며 유태인이 아우구스투스 강제 수용소에서 이유 없이 죽음을 맞았을 경우를 비교한다면.....

까를로 까레토, 그는 불운의 사고가 있는지 30년이 지난 후비로소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서 “잘못된 주사로 말미암아 나의 다리는 마비되었으나 이는 불운의 마비가 아니었다. 이는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에 이른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불운과 은총으로 구별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총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고 싶다. 단지 우리가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영의 눈이 밝지 못해서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나의 체험으로 보건데 가난과 고통의 상처는 특별하고 매우 값진 그리고 무척이나 달콤한 꿀을 만들어 냅니다. 나는 이 꿀을 맛보았고 복음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과 수많은 신비스러운 일들의 이치를 확신하게 되었다” 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는 또 욥기 42:5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뵈옵니다.” 를 보며 고통을 겪는 가운데 내부의식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갖게 된다.

“고통이 나를 사물의 내면으로, 즉 빛 속으로, 문제 속으로, 법칙 속으로, 그리고 세포 속으로 데려갔다” 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리고 천국 보물의 비밀은 깊숙이 감추어져 있어 매우 어려운 퀴즈를 푸는듯하다. 그러나 고통의 열쇠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보물을 차지하기도 한다.

“발가락을 돌부리에 채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라

고 그는 이야기 하며, 이 책에서 그와의 만남은 하나님에 다양한 모습의 일부를, 그리고 천국비밀의 일부를 엿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우리에게 그동안 혼돈되어 왔던 신앙적 갈등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정리되고 명확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더해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일깨워준다.

“자유는 실제로 지옥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도전을 요구합니다. 만일 낙원만 있다면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만 있다면 우리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되고 언제나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은 처음에 많은 자유(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제외)를 누리고

있었으나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자유를 잃게 되어 삶을 위한고생과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이제 남은 자유는 고귀하게 간직해야 하며 그 자유 가운데는 고통을 맞볼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낙원에서 쫓겨나 자유를 빼앗기듯 우리를 나약한 인간으로, 생각이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주여, 왜? 욥기 42:5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단지 주시는 응답을 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닫느냐 하는 것도 전적인 우리의 선택이며 은총이다.

주님 오신날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솔로들이 커플들을 쳐부시기 위해 있는 날도 아니고 커플들의 사랑을 단결하는 장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계기가 아니고, 성탄 특수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관련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며,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기 위해 있는 날도 아니고, 게임 이벤트를 위해 있는 날도 아닙니다. 뭐라해도 오늘은 이 ‘거룩한 밤’인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사흘 후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이 오늘입니다.



사실 오늘도 글을 쓸 내용이 있고, 언제나 생각할 이야기는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왕이시고 사랑으로 가득찬 그분이 오신것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갈보리 유머

성경 년센스 퀴즈

1.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은? (사라)
2.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사가라)
3. 세계 최초의 배게는? (돌배게)
4.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면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디 일까요? (겔장)
5. 아기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에베소서)
6. 성경 인물 중 최고의 예언가는?(미리암)
7.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구단은? (3 x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8. 이 세상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은? (느부갓 네살왕)
9. 교회에 절대 없는 벌레는? (무당벌레)
10.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바로왕)

갈보리 앨범

12월 24일 저녁 성탄축하예배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Christ
아기예수 나심을 축하합니다

길 위에서 - 성탄시

그 밤, 큰 별 하나 유난히 빛나더니
이 먼지 바람 부는 지상의
이토록 어두운 곳에
환한 별빛 안고 사랑의 아기로
올법 아래 당신은 오셨습니다

자꾸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채워도 채워도 텅 비어 가는
혈 벗고 굶주린 우리 영혼 깊숙히
당신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빛나는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따스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가야하는, 아픈
그 아득한 길을 알기에
당신의 천진난만한 미소 앞에서
나는 그만 눈 앞이 흐려집니다

끝 없이 주지만 하는 사랑
당신의 못박힌 손과
빈사의 얼굴을 기억하면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이 세상의 한 가운데서
어둠이 무성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우리가,
작은 불꽃으로 일어서야 할 때
저마다의 작은 소명들이 모여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불꽃으로
낮게, 깊게 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조봉숙

